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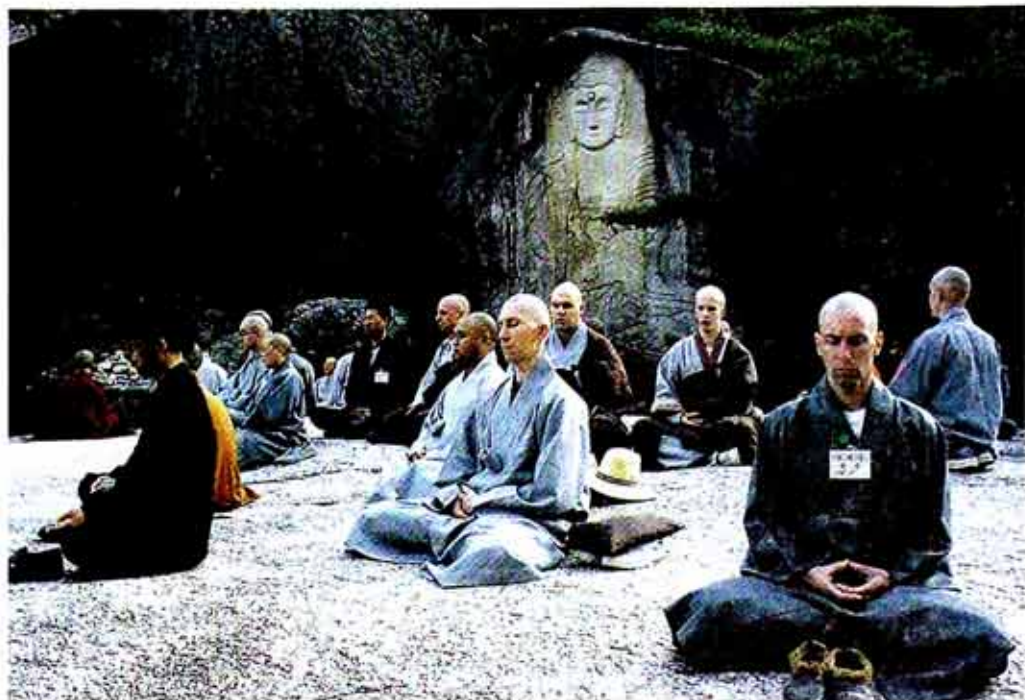
○서울 종원사에서 외국인스님들이 식당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피란 논의 수행자들이 한국전통문화체험 길에 나섰다.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외국인 수행자 한국전통문화체험' 제1차에 나선 외국인 수행자는 모두 49명. 미국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인도 몽골 스리랑카 네덜란드 등이 온 나라 수만도 열아홉에 이른다. 화계사 연등불교국제회관 무상사 금강선원 대인사 구룡사 흥인사 봉도사부산포교원에서 한국과 한국불교를 배우고 있는 스님들이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불교종단협의회가 조계종과 진각종, 원불교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제포교사회의 유창한 영어 승씨가 상공적인 행사를 거들었고, 문화공연기획사 '소리향'은 무대공연을 맡아 심청전과 대금산조,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석굴암 불국사, 경주 남산,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소수서원, 봉암사, 법주사, 용인 민속촌, 서울 불원사에 이르는 대장장이였다. 눈부른 외국인 수행자들에게 한국의 불교와 전통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석굴암의 석가모니부처님은 한 외국인 수행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 왔다.



○봉암사 마애불 앞에서 잠깐 좌선심매에 들었다.

“한국은 부처님 나라...아주 특별한 순례”

외국인 수행자 전통문화 체험

석굴암·해인사등 5일간 “가는곳마다 절로 환희심”

“석굴암 참배는 세 번째입니다.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의 모습에서 대자대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대자대비행인지를 느낍니다. 부처님을 우리라 하면 합장한 내 두 손바닥의 따스한 체온, 가슴 속에서 불결치듯 울려오는 뜨겁고 통렬한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경영학 교수였던 대봉스님. 1977년 송산스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프록비언스 선원을 7년 동안 드나들다가 서른 넷의 나이가 되던 84년 머리를 깎고 한국스님이 되었다. “한국인은 사람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나를 있게 해주었으며, 나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제시해줍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의 정신입니다.”

19개국 49명 참가

대자대비의 정신을 그는 석굴암 본존불에서 보았다. 그에게 석굴암 본존불은 대자대비의 표상이며, 현실에 구현하려는 자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대봉스님의 말을 듣고, 기자는 잠깐 동안 눈앞이 캄캄해지는 진공에 빠졌다. “나는 너무도 확실히 살고 있구나.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 담담하고 추석추석한 날들.”

불국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몽골에서 온 비구니 불상스님은 이번이 여덟 번째 방문이다. 전남 보성 대인사 원장스님의 초청으로 지난 3월 한국에 왔다. 서강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 와서 사귀 친구들이 한국을 알려주었다며 데려온 곳이 주로 불국사였다.

그러나 이번은 조금 달랐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라 담주를 배지했다는 불국사 포교국장 정법스님의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운교 백운교 대웅전 무설전으로 이어지는 절을 걸어가 불국도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말에 자

꾸 발 끝으로 사선이 머물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할 건축으로 표현해 낸 한국인의 불심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을 지닌 한국이 바로 부처님 나라 아닌가요.” 서툰 우리말로 불국사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하려 애를 썼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프로그램은 원안대장경 인경(仁經).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체험이다. 차를 기다리면서도 연신 몸을 내밀어 앞사람의 동작을 살핀다. 경간 위에 끌고두 먹을 바르고, 닥종이를 올려놓는 동작 하나하나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스리랑카 출신의 무오스님. 진각종에서 세운 사회복지시설 ‘진실로 하나 되는 기쁨’ (JGO, The Joy of Genuine Oneness)의 소장이다. 자신이 찍은 인경지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이고는, “책자에 넣어 JGO 사무실에 걸어놓고 한국에서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며 활짝 웃는다. 인경을 마친 무오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불구침을 향했다. 3000원을 주고 인쇄된 팔만대장경 1장을 샀다. 고향의 온사스님께 드릴 선물이란다.

해인사 선방 소림원(小琳院) 방문도 이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한국 전통사찰의 선방, 방부를 드리지 않고서는 문턱도 넘지 못하는 곳이

선방의 법도인데, 이날은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스님들처럼 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봉암사 태고선원에 들르는 행운도 안았다. 태고선원의 좌복에는 앉지 못했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곳이 아니었다.

“깨달음 세계로 함께”

아직 외국인에게 선방 문은 열려 있지 않다. 비구계를 받지 않았고 언어 소통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날 밤 있었던 대화의 시간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수계와 한국어로 모아졌다. 폴란드에서 한국에 온 지 9년째 되는 관미스님. 비구계 수계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갈마에서 번번히 탈락했다. 갈마사의 절문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선우스님은 “한국에 온 외국스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최소한 갈마에 통과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수행자만을 위한 기초교육기관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의 선방에서 한국스님들과 나란히 가부좌를 들고 화두심매에 들 때도 많지 않았다. 이제 문화체험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에 함께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pia.com)



○해인사에서의 인경체험.

“인간과 자연조화 중요성 확인”

인터뷰 문화체험 참가한 대봉스님

문화체험 현장에서 만난 대봉스님. “문화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찾기”

계룡산 무상사 무상선원장 대봉스님.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고참 스님이다. 세남 51세, 84년에 삭발열의했으니 법랍 16년이다. 출가 이후 동간자 결제를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롭게 보여주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베, 전장 이후 미국의 문화가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국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생활 행복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옛날 것을 현대화했는데, 옛것을 간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봉스님의 한국전통문화론이다. 그러나 문화보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며,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연, 동물과의 올바른 상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울 뿐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통해 자기를 찾으면,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의 세계입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해초깨즙샐러드

“저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라 말씀이신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소나무일 뿐, 저 소나무라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름이 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소나무는 분명 곱고 푸른 형상을 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부처님게서 항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이르셨더라면 말이나?”
“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무는 머지않아 늙으면 말라 죽게 될 것이요, 그리 되면 부처에게 썩어서 저 형상이 없어질 것이니 그래서 모든 형상이 없어지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이르셨나이다.”
무릇 고(苦)·집(集)·멸

하셨다. 가슴속에 찬서리 같은 자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님은 특히 갈매과 해초류를 즐겨 드셨다. 불가에선 경전 강독이 끝나면 전통적으로 팔죽을 먹었고, 선승들은 다시마, 미역, 김, 킨나물 등을 가루로 내어 생식을 하거나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피를 맑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해초의 효능을 동산스님에 드는 죽은 산삼보다 좋은 것이라며 여러 대중들에게 늘 강조하는 마음으로 죽을 먹으라고

피 맑게하고 호흡 고르게

(滅)·도(道)를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고(苦)를 끊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세속의 외사를 버린 동산스님. 고무호수로 밧속의 밧 썩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영현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는 불법을 더 좋아하신 스님. 동산스님은 생전에 사시마지와 조석 예법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분으로 유명하다.
동산스님은 청풍당 선방에서 아침에 드는 죽은 산삼보다 좋은 것이라며 여러 대중들에게 늘 강조하는 마음으로 죽을 먹으라고

하셨다. 가슴속에 찬서리 같은 자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님은 특히 갈매과 해초류를 즐겨 드셨다. 불가에선 경전 강독이 끝나면 전통적으로 팔죽을 먹었고, 선승들은 다시마, 미역, 김, 킨나물 등을 가루로 내어 생식을 하거나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피를 맑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해초의 효능을 동산스님에 드는 죽은 산삼보다 좋은 것이라며 여러 대중들에게 늘 강조하는 마음으로 죽을 먹으라고

만드는 법(1-2인분)

- 재료** 해초류(미역, 다시마, 킨나물 등) 각 100g, 오이 ½개, 밥 3개, 참깨가루, 식초, 볶은 소금
- 요리법** ① 해초류는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크기의 길이와 넓이로 잘라준다. ② 오이 곱잘을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③ 비슷한 크기로 어슷하게 썰고 밥도 곱잘을 까서 얇게 저민다. ④ 깨를 곱게 갈아 식초와 소금을 섞고 위 재료를 담은 접시 위에 뿌린다.
- 효능** ·미역은 뼈의 발육에 좋고 피를 맑게 하며 변비를 치료한다. 특히, 미역귀는 생명의 씨로서, 심장병과 뇌졸중에서 특효하고 피부 미용에 좋다. 미역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끓이면 잔주름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다시마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예방에 좋다.